



행정 단속 안중에도 없는 불법광고물

서귀포시 110만여건 수거... 과태료 고작 4건
근절위한 지속 단속과 강력 처벌 목소리 비등

서귀포시가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행정의 계속된 지도·단속에 도 불법 광고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불법 광고물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찾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영어교육도시 곳곳에는 '분양', '교육' 등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이 설치돼 있었고, 인근에서는 차량을 이용

해 불법 광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인원이 눈에 띄었다. 같은날 서귀포시 월덕킵 경기장 인근에서도 불법 광고물이 설치돼 있는 등 서귀포시 지역 곳곳에서 불법 광고물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영어교육도시에서 만난 김모(31)씨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불법 광고물 난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단속에 의해 철거된 불법 광고물 자리에 다음 날이면 또 다른 불법

광고물이 설치돼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의 계속된 지도·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되더라도 대부분 계고에 그치고 있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처음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나서며 지난 한해동안 31만건이 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그러나 이중 계고

는 75건에 그쳤고, 과태료 부과는 2건(45만원) 뿐이었다. 올해에는 지난 1~5월까지 83만건이 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으나 계고 113건, 과태료 부과 2건(52만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인력부족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해 평일과 주말 등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면서 "또한 영세상인들이 내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올바른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외상·질병없어 국과수 정밀감식 의뢰”

항생제 맞고 숨진 남아
경찰 어제 부검 실시해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후 사망한 A(3)군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외상 또는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부검의 소견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정밀 감식 결과는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A군이 지난 23일 오

전 6시30분쯤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항생제를 맞은 직후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A군은 지난 22일 얼굴 부위가 심하게 부어 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주사를 2차례 맞은 등 치료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23일 세번째 항생제를 투약 받은 후 이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들이 A군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A군은 숨졌다. 경찰은 현재 해당 병원 진료차트와 항생제, 식염수 등을 확보해 병원 측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는 조종사 과실”

2017년 제주시 2명 사상
국토부조사위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지난 2017년 7월 2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추락사고 원인을 '조종사가 착륙 강하 중 고압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고 당일 조종사의 건강상의 관여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패러글라이더는

총 중량 167.8kg으로 비행최대 중량(220kg) 내에 있어 장비상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일 날씨는 비행에 지장이 없었다"며 "비행 후 지정된 착륙장에 착륙해야 하는데 계획된 경로를 벗어나 고도를 너무 낮춰 고압전선주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에 전신주 등의 장애물 사주경계에 유의하도록 협회 소속 전 조종사들에게 강조하도록 안전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 A(46)씨가 사망했으며 관광객 B(39)씨는 중상을 입었다. 김현석기자

묘지 진출입 다투다
전기톱 휘둘러 상해

서귀포경찰서는 26일 별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소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인근에서 별초객 B(42)씨와 묘지 진·출입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택 창고에서 전기톱을 갖고 나와 B씨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전기톱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사진도 좋지않... 아찔한 절벽위 관광객들 26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해안가를 찾은 관광객들이 안전시설 없는 절벽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경찰, 난폭·보복·음주운전과 전면전

인력·장비 총동원 100일간 집중단속

전국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제주 카니발 난폭운전'을 계기로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경찰청도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도 단속 대상에 추가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보복운전 검거 현황

(불구속 기소 기준)은 2017년 24건, 2018년 11건, 올해(7월 기준) 16건이 발생했다. 또 난폭운전 검거 현황은 2017년 9건(구속 1건), 2018년 8건, 올해(7월 기준) 3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보복·난폭운전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내달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0일간 가중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동물테마파크 관련
지역주민 갈등 격화
찬·반 양측 성명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 찬반측이 26일 각각 성명서를 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선흘2리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마을이장은 공식적인 개발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명의를 도용해 이장이 체결한 협의안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았다"며 "또 23일 찬성위원회는 조천읍 탐사르습지도시 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미리 작성한 문건을 제주시청에 공문 발송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장과 찬성위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 행동에 대해 제주도는 어떤 징계나 비판이 없다"며 "제주도정은 승인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을 당장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찬성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상호협약서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한 반대주민 170명 중 소송에 남인한 적도 없고 소송에 참가하는 지도 모르는 다수가 있다"며 "강압과 압박에 서명을 강행하는 등 이는 사법부를 우롱하는 명의도용, 공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4일 늦은 시간에도 어린이들까지 동원해 마을을 돌아다니는 불법 시위를 진행하고 마을 향약도 무시한 불법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는 불법 행동은 삼가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석기자

제주시정 소식

8월 명사초청 시민행복 인문학 강좌 운영

- 일 시: 2019. 8. 30. (금) 오후 7시
- 장 소: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
- 주제 및 강사: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 / 심용환 소장
- 대 상: 제주시민 200명 (선착순 무료입장)
- 문 의: 제주시 자치행정과(평생학습팀) ☎728-8681-8683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 36대

이용시간	설치장소	
365일 연 중	08:00~22:00	추진면사무소, 우도면사무소
	05:00~22:00	제주공광 (2대)
	07:00~22:00	중앙로 지하상가
	06:00~22:00	국제여객터미널 (제7부두)
	07:30~19:30	연안여객터미널 (제2부두)
	08:00~22:00	제주대학교병원
평 일	05:00~21:00	탐라장애인복지관
	08:30~18:00	도정 민원실 (내부), 이도2동행정복지센터 (내부), 연동주민센터 (내부), 외도2동행정복지센터 (내부), 삼양동주민센터, 용담2동주민센터, 외도동주민센터, 용담1동주민센터, 오라동주민센터, 삼도1동행정복지센터
09:00~18:00	제주지방법원, 정부종합청사	

2020. 제주돌불축제 콘텐트 공모

- 공모분야 : 2020 제주돌불축제 주제, 프로그램 및 홍보영상
- 공모기간 : 2019. 8. 8. (목) ~ 2019. 9. 5. (목)까지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가능
- 접수 방법 : 우편 (등기), E-mail, 방문 • 우편접수 : (63208)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2동, 제주시청)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돌불축제 담당자 앞 • E-mail 접수 : kbk0725@korea.kr
- 접수기한 : 2019. 9. 5(목) 18:00까지
- 문 의 : 제주시 관광진흥과 ☎728-2753

제4기 체력증진교실 회원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2019년도 신규체력 측정자 중 과체중 또는 저체력자 대상(수업 시작일 기준 8주 전까지 체력측정 기록이 있는 자에 한해 등록가능)
- 신청기간 : 2019. 8. 26. (월) ~ 9. 6. (금)까지 *선착순 마감
- 운영기간 : 2019. 9. 16. (월) ~ 11. 8. (금) [8주간]
- 모집인원 : 각 반별 30명 (총3개반 150명 모집)
 - 오전반 : 월, 수, 금 (11:00 ~ 12:00)
 - 오후반 : 월, 수, 금 (16:00 ~ 17:00)
 - 저녁반 : 월, 화, 목 (19:00 ~ 20:00)
- 프로그램 내용 :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등 기초체력향상을 위한 자세, 운동방법 교육 및 실습
- 문 의 : 제주시 체육진흥과 ☎759-8795-6

2019. 제20회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 기 간 : 2019. 8. 23. (금) ~ 9. 25. (수)
- ※ 개막식 : 2019. 8. 23. (금) 19:00, 제주해변공연장
- 장 소 : 제주해변공연장, 괘지해수욕장, 해안도로 등 7개소
- 주 제 : 레저스포츠의 메카, 제주에서 느끼는 스릴과 감동!
- 종목별 세부일정

종 목	행사기간	장 소	주관단체	비고
제1회 개막행사 (19:00) 제8회 전국장애인스피드스케이팅대회	8. 23(1일)	해변공연장	제주시관광축제추진위원회	
제20회 제주시장애인3종 경기	8. 23~8. 24(2일)	이호대우해변 ↔ 해안도로	제주트리아슬론클럽	
제7회 전국장애인하키 대회	8. 31~9. 1(2일)	제주종합경기장인라인스케이트장	제주시롤러스포츠연맹	
제22회 전국바다낚시 대회	9. 1(1일)	제주시 용담해안도로	(사)제주도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	
제18회 전국원드서핑 카이트보드 대회	9. 21~9. 22(2일)	괘지해수욕장	제주특별자치도원드카이트연맹	
제1회 전국 미니드론 레이싱대회	9. 22(1일)	사라별다목적체육관	한국드론협회 (디스포츠(주)·대행)	
제20회 돌이애리 골프대회	9. 24~9. 25(2일)	오리골프장	제주특별자치도골프협회	

○ 문 의 : 제주시 관광진흥과 ☎728-2257

제주도정 소식

올해 노지감귤은 생리과과가 덜 되어 소과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농업인 스스로 감귤 열매숙기를 반드시 실천합시다

2019 세계한민족여성네트 워크 제주행사 일한 최정숙 뮤지컬 공연 안내

○ 공 연 명: 동렷저, 혼저글라

○ 공연일시: 2019. 8. 30. (금) 14:30

○ 공연장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내 용: 제주여성 항일운동 뮤지컬

원작자와의 대화 및 공연 관람

○ 문 의: 성평등정책관(710-6552)

주간농업농촌소식

키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 심포지엄

국내산 키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GAP 인증, 병해충 관리 등 수출국 맞춤형 고품질 키위 생산에 대한 최신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키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정 안 내 -

- 일시: 2019. 8. 30. (금) 09:30-14:00
- 장소: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제주시 선덕로 23)
- 주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제주키위산학연협력단(제주대) 키위수출연구사업단(전남대)
- 대상: 수출키위 재배 농가, 수출·유통 관계자, 유관기관 등
- 주요내용
 - 키위 재배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신시설: 전남농업기술원 조혜성 박사
 - 수출국에서 원하는 품질기준: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고혁수 이사
 - 수출키위의 병해충 관리: 전남대학교 양광원 교수
 - 글로벌 GAP 인증 기준과 절차: 전남대학교 조정안 교수
 - 질의응답 및 토론: (좌 장) 제주대학교 송광전 교수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감귤야열대연구과 (760-7271)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